

#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



청나라 말기에 복원되어 보수를 거듭한 옛 전각과 요사.



지금도 대중스님들이 거주하는 옛 백장사의 탑과 천왕전.

## 백장사(2)

백장사는 당나라 대력 연간(776~779)에 지어진 향사암(鄕寺庵)이란 조그만 암자가 중창을 거듭하면서 총림이 된 절이라고 전해진다. 암자 이름대로 산촌 사람들을 위해 시장했다가 백장선사가 주석하면서 백장사로 이름이 바뀌었을 터. 백장선사가 입적한 뒤에는 한때 시호를 따라 대지성수선사(大智聖壽禪寺)라는 편액을 내걸었던 듯하다. 그러나 승속의 불제자들은 절 이름을 다시 백장사로 돌렸다. 절 뒷산인 대웅산(大雄山)도 현지 주민들은 백장산이라고 부른다. 백장사가 가장 융성했을 때는 명청시대였다고 한다. 명 흥무 연간에는 3사(寺) 5묘(廟) 48암자라고 하니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을 것 같다. 지금 황제의 공궤처럼 웅장하게 복원하는 것도 그때를 재현하고자 그러지 않나 싶다. 작위(作爲)는 욕심과 이복형제쯤 될 것이다. 무상의 절절함이 신심을 증장시키는 법인데 안타깝다.

산문을 들어서 대웅전까지 걸어가는데, 연못을 지나 축구장만한 마당을 거쳐야 하니 청빈을 수행자의 요긴한 덕목으로 여겼던 옛 조사님들에게 자꾸 송구한 마음이 든다. 화로 속의 불티 한 점, 땅바닥에 흘린 쌀 한 톨을 주워들고 범문하던 백장 선사의 검박한 정신도 찾을 길이 없다.

스님은 복건성 복주(福州) 장락(長樂) 출신인데, 조상은 태원(太原)의 왕(王)씨로서 영가(永嘉)의 상란(喪亂)을 피해 이주한 가문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다. <사가어록>은 왕씨라고 하고, <조당집>에는 황(黃)씨라고 기록되어 있다. 어린 시절 백장은 어머니를 따라 절에 자주 가곤 했다. 하루는 부처님에게 절하고 나서 어머니를 크게 놀라게 했다.

“어머니, 저게 무엇입니까?”  
“부처님입니다.”  
“생김새가 사람 같아서 저와 다르지 않습니다. 뒷날 저도 부처가 되겠습니다.”

스님은 약산 유엄의 삭발승승인 서산해조 화상에 게 머리를 깎고, 형산 법조 율사에게 비구계를 받았 다. 비구계를 받고 난 뒤 “장차 미망의 근원을 씻어

내려면 반드시 범의 바다 가운데서 노닐어야 하거늘, 어찌 오로지 마음을 깨치는 것뿐이라. 또한 말로 따지어 가르치는 것도 의지하지 말자”라고 말했다. 이후 스님은 안휘성 여강으로 가서 수년에 걸쳐 부차사(浮屠寺)의 장경을 두루 열람한 뒤 마조 대사 문하로 들어가 인가를 받았다.

마조 대사를 만난 백장이 깊이 깨달아 인가를 받는 선화다. 스님이 마조 대사를 모시고 가다가 날아가는 들오리 떼를 보았는데 그때 마조가 물었다.

“이것이 무엇인가.”  
“들오리입니다.”  
“어디로 갔는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마조가 갑자기 백장의 코를 집더니 인장사 정없이 비틀었다. 백장은 아야! 하고 비명을 질렀다.

### 마조가 백장의 코를 비트니 비명을 지르며 대오하다

“날아가 버렸더니, 어디 다시 말해 보거라!”  
마조의 날벼락에 백장은 문득 깨달았다. 시자 방으로 돌아온 백장은 목 놓아 울었다. 걱정이 된 한 스님이 물었다.

“부모님 생각에 우는 겁니까?”  
백장은 고개를 저었다.  
“누구에게 욕을 먹었군요.”  
백장은 다시 고개를 저었다.  
“도대체 왜 우는 겁니까?”  
“스님께서 제 코를 사정없이 비틀어 아파서 우는 겁니까.”

“무슨 일로 스님의 노여움을 샀습니까?”  
“죄질 스님께 여쭙보십시오.”  
그는 곧 마조에게 갔다.  
“회해 시자는 무슨 일로 스님께 코를 집고 나서 우는 겁니까?”

“회해가 알 것이니 그에게 물어 보거라.”  
할 수 없이 그는 백장에게 와 말했다.  
“스님께서 회해 스님이 더 잘 알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때 백장이 큰 소리로 웃어댔고, 그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물었다.

“아까는 울더니 지금은 왜 웃습니까?”  
“맞습니다. 아까는 울었고 지금은 웃고 있습니다!”  
다음날 마조가 범문하려고 법상 앞에 앉았다. 그런데 백장은 대중이 보는 가운데 좌복을 꺼져 치웠고, 마조는 방장실로 돌아가 버렸다. 잠시 후 마조가 뒤따라 간 백장에게 물었다.  
“실법도 시작하기 전에 왜 좌복을 치웠는가?”  
“어제 스님께서 제 코를 비틀어 아파서 혼났습니다.”  
“어제 너는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었는가?”  
“오늘은 코가 더는 아프지 않습니다.”  
“오늘 일을 잘 알고 있군!”

<사가어록>에서는 이 부분이 ‘어제의 일을 깊이 밝혔구나’라고 나온다. ‘백장은 마조에게 큰 절을 올리고 난 뒤 물러나와, 이렇게 해서 백장의 들오리(百丈野鴨)이란 공안이 탄생하게 된다. 백장이 신도들의 요청으로 대웅산으로 들어와 주석하기 시작한 때는 마조가 입적한 뒤였다. 대웅산의 바위와 빛부리가 깎아지른 듯 높았으므로 스님을 백장(百丈)이라 불렀고, 머문 지 한 달이 못 되어 대중이 물려 들었다. 그중에서도 고족(高足)은 위산 영우와 황벽희운(黃壁希運)이었다.

백장이 선종사에 남긴 최대의 족적은 아마도 <선원청규(禪院淸規)>의 제정이 아닐까 싶다. 이로 인해 선사와 율사 도량이 구분되어 발전했고,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一日不作一日不食)’는 농선(農禪)의 보정정신이 확립되어 황실이나 귀족의 후원, 혹은 탁발에 의지하지 않고 대중이 스스로 논밭을 개간하여 자립의 기반을 다졌던 것이다.

‘널리 청한다’는 보정(普請)은 울려처럼 누구나 예의 없이 노동에 참여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었다. 당시 백장선(百丈禪)의 요체가 됐다.

실제로 백장은 80이 넘어서도 농기구를 들고 숲향하여 논밭으로 나가곤 했다. 80이 넘는 나이에도

방장실에서 쉬지 않고 울려에 참가하니 시자는 물론 전 대중이 스님의 건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루는 시자가 호미와 괭이를 감추고 말했다. 그러자 백장은 “괭이 없어 이러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수고롭게 해서야 되겠느냐”고 하며 이리 저리 연장을 찾다가 그날부터 공양간을 가지 않았다. 결국 시자가 연장을 도로 내어드리고 나서야 백장은 공양을 했다. 대중 모두가 낮에 일하는 날에는 반드시 밤에 선당에 모여 좌선을 했다. 좌선하기 전에 백장은 간절하게 설법을 했다.

“공부는 때 묻은 옷을 빼는 것과 같다. 옷은 본래 있는 것이나 때는 밖에서 온다. 모든 소리와 색은 기쁨때와 같은 것이니 아예 마음에 두지 말라. 흐르는 허물을 끊고 공부하기를 머리에 타는 불을 끄듯 해야 할 것이다.”

### 농선(農禪)의 보정정신 자립의 기반을 다지다

물론 수행하면서 농사를 짓는 이른바 농선쌍수(農禪雙修)는 4조 도신으로부터 비롯됐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도신은 500명의 대중이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쌍봉산 산자락을 개간하여 논밭을 만들었다. 그 결과 노동하는 수행자들의 신체는 건강하게 단련됐고, 절 주변에 사는 백성들은 세금이 줄어들었다. 이는 ‘선과 노동은 하나다’라는 선농일여사상의 출발점이 됐다. 도신이 ‘좌선을 근본으로 하되 15년은 노동해야 한 사람의 먹을거리를 얻어 주린 배를 채울 수 있다’고 주장한 바, 백장의 보정보다 100년이나 앞선 가르침이었다.

백장과 제자들의 선화 중에는 농동을 소재로 한 공안이 많다. 그 한두 가지만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대중울려로 밭을 개간하고 돌아오는 길에 백장이 황벽에 물었다.  
“밭 개간이 쉽지 않겠지.”

“대중들이 다 일했습니다.”  
“도용(道用)만 번거롭게 하였고.”  
“어찌 감히 일을 그만두겠습니까?”  
“얼마나 개간하였는가.”

황벽이 밭 매는 시늉을 하자 백장이 별안간 할(喝) 하고 고함쳤다. 그러자 황벽이 귀를 막고 가버렸다. 대중울려로 길을 매는데 한 스님이 북소리를 들더니 호미를 들고 일어나면서 깔깔 웃고 돌아가니 백장이 말했다.

“정말 좋구나. 이것이 관음보살이 진리에 들어가는 방편이다.”  
뒤에 백장이 그 스님을 불러 물었다.  
“그대는 오늘 무슨 도리를 보았는가.”  
“저는 아침에 죽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소리를 듣고 돌아가 밥을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백장이 결결 웃었다. 죽도 먹지 못하고 일했으니 얼마나 시장했을까. 오매불망 밥 먹을 생각만 하다가 북소리를 들었으니 좋아서 웃음이 절로 나오지 않겠는가. 노동과 선이 하나로 회통이 되는 도리다. 배고픈 자가 일념으로 밥 먹을 생각만 하는 것도 진리에 들어가는 방편과 다르지 않으리라.

최근에 복원한 백장사 대웅전과 옛 백장사의 안대가 다르다. 목은 절집 백장사는 앞산이 안산이지만, 새로 지은 백장사는 세속으로 나가는 진입로 쪽을 바라보고 있다. 한번 들었으면 나가기 싫은 땅이나 가람배치가 수행자에게는 좋은 터요 묘사일 것이다. 절이 세속의 길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마음을 들뜨게 하기 때문이다.

옛 백장사로 들어가 보니 허름한 전각과 요사가 청대의 것이다. 조사전 벽은 곧 무너질 것 같다. 한 스님이 아무아미타불을 노래하듯 흥얼거리면서 빨랫줄에 널린 빨래를 걷고 있다. 나는 스님에게 다가 가 명함을 내밀고 난 뒤 필담을 시도한다. 처음에는 무심하더니 중국인 길잡이가 와 설명하자 하던 일을 멈추고 안내를 해준다. <계속>

글=정찬주, 사진=유동영



##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LED전구, DC 9V  
백색·노랑·빨강

아주 밝은 건전지 초 (LED용)

원터치 고리용

고주구 12E (법당용)

방수구 26E (외부용)

SMD LED전구(국산제품) AC 220V

###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 (정품)

-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 법당용, 외곽용
- ▶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 ▶ 소켓 AC220V용으로 다양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 (정품)

-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 종류: 5W, 10W
- ▶ 특 휠라멘트가 빛이 율등이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 등 (정품)

법당등(공민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근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3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1-1